

# 문화전당서 즐기는 시민 아카데미

‘문화 예술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

최근 들어 다채로운 기관들이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후 처음으로 시민아카데미를 진행, 눈길을 끈다. 이번 강좌는 음악, 미술, 무용, 커피 등 17개 프로그램을 아우른다.

강의는 예술, 메이커스, 생활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음악평론가 장일범, 문학평론가 신형철, 발레리나 김주원, 영화 평론가 전찬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개강을 앞두고 특별 무료 강좌를 진행하며 해외 탐방기획도 준비하고 있다.

강의와 감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음악 강좌가 진행된다. ‘음악평론가와 읽는 클래식’(장일범·유태형), ‘라이브 음악 세미나’

클래식·미술·무용·커피 등 17개 강좌 ... 오늘부터 신청 접수

26일 이태호·27일 강신주·28일 장일범 무료 오픈 강좌도

(김주영·서정실·함석헌), ‘유라시아 음악 순례’(박제성·이나리메) 등이 대표적이다.

미술 강좌로는 ‘동서양 미술·사이의 미학’(조이한·이태호), ‘크리에이티브 드로잉’(마이클 사이먼)이 진행되며 이태호 평론가와 함께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둘러보는 ‘테마가 있는 예술 기행·인상주의 회화’(7월7일~16일)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영화평론가 전찬일·이용철 등이 진행하는 ‘시네마 천국’, 문학평론가 신형철, 문강형준, 서은혜가 강사로 나서서

‘현대적 고전을 찾아서’가 대기중이다.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스 강좌는 ‘블루업-셀프 스피커 만들기’(미디어 아티스트 고창석), ‘뚜덕뚜덕 업사이클링’(신양호), ‘직조 생활-현웃으로 만드는 타피스트리’(정은실), ‘재활용 악기 만들기-버려진 것이 만든 노래’(전원진, 김동현) 등을 만날 수 있다.

생활 문화로는 플라워 테라피(플로리스트 김이박), ‘나만의 커피 레시피’(장혜경)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별강좌로는 국내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씨가 ‘섬머 발레 스쿨’(16회)강좌도 진행한다.

무료 오픈 강좌도 준비돼 있다. 26일에는 이태호(미술평론가) 명지대 교수가 ‘검재 정선과 폴 세잔느’를 주제로 강연하며 27일에는 철학자 강신주가 ‘사회적 감수성을 찾아서 : 경쟁에서 사랑으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그밖에 28일에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에 대해 강연한다. 세 강좌 모두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문화정보보원 극장 3에서 열린다.

모든 강의는 5월~6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 비용은 회당 1만원~2만원 수준이다.

수강 신청은 11일부터 홈페이지(www.acc.go.kr) 및 현장접수 할 수 있다. 문의 1899-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타악 그룹 ‘일쑤’ 공연 모습

##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국악’

임방울국악진흥회 올 한해 다양한 국악 공연

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가 올 한해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국악’을 주제로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대표공연예술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방울국악제 입상자 등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씩 공연을 진행한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타악 그룹 ‘일쑤’의 신명난 풍물 판굿에 이어 제13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찬미씨가 ‘홍보가’ 중 ‘박 타는 대목’과 ‘심청가’ 중 ‘속대머리’를 들려준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소씨 등이 ‘살풀이 춤’을 선보이며



김찬미

지난해 퓨전판소리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연주도 이어진다.

또 국악신동 이승훈 군이 ‘수궁방’을 들려주며 이승원씨가 아코디언 연주로 ‘목포의 눈물’,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선보인다. 그밖에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노해현씨가 ‘심청가’ 중 ‘심봉사’를 들려준다.

오는 5월 28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며 10월에는 대구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521-0731~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유·스퀘어 ‘아름다운 예술시장’에서 만나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일 2층 야외광장서 열려

‘아름다운 예술시장에서 만나요’ 유·스퀘어가 16일 2층 야외광장(유·테라스)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개최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매회 지역작가 30여팀이 비누, 옷, 팔찌, 인테리야 소품과 예술품들을 판매하고 소규모 공방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시장에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셀러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공방을 열어 관람객들과 제작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야외광장에서는 지역 밴드들을 출연하는 공연도 진행한다.

예술시장은 참가 수수료가 없는 대신 지역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



지난달 유·스퀘어에서 열린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유·스퀘어문화관 제공>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담당

자 이메일 (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초 받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황홀한 오춘기’

1기 참가자 모집

극단 청춘

극단 ‘청춘’이 어른들을 위한 감성 충전소 ‘황홀한 오춘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미술과 연극의 융합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통합문화예술교육이다.

움직이는 연극놀이와 그림을 이용한 자기 매력 탐색,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 찾기, 상황극 만들기, 소망나무 만들기, 스토리북 제작, 낭독극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7시~10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강좌는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문의 062-430-5257, 010-5199-5257.

/김미은기자 mekim@

‘정의란 무엇인가’ 새 국회의원에 추천 책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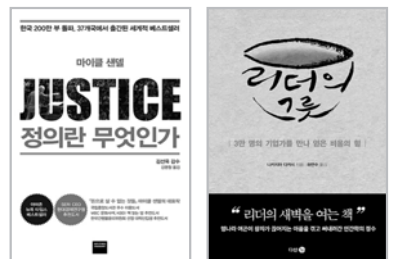
2위는 ‘리더의 그릇’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추천하는 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회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 받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1107명의 독자들 가운데 143표(13%)를 얻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독자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알려준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와 같은 이유를 전했다.

2위는 61명(6%)의 추천을 받은 나



카지마 다카시가 3만 명의 기업가를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리더의 그릇’이 차지했다. 3위는 2016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에 오른 버니 샌더스의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이 57명(5%)이다. 이와 함께 ‘부국의 조건’(39명·4%)과 ‘필리버스터 :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34명·3%)도 추천도서 순위에 올랐다.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